

# 이해찬 전 총리 시신 서울대병원 빈소 도착... 정청래 대표 상주

### 정오부터 조문 시작 닷새간 사회장 엄수



베트남 출장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시신과 영정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해 운구되고 있다.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시신이 27일 빈소가 차려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조문은 이날 정오부터 가능하며, 상주를 자처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문객을 맞는다.

이 전 총리의 시신을 실은 대한항공 항공기는 베트남 호찌민 편선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지 약 4시간 30분 만인 이날 오전 6시53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상임 장례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민주당 대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인천공항에서 이 수석부의장을 영접했다. 이 전 총리의 시신은 계류장으로 옮겨진 뒤 영접 인사들의 간단한 행사 이후 유구 차량을 통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의장대는 이날 오전 9시 7분께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운구차를 맞았다. 빈소인 장례식장 3층 1분향실에는 오전 일찍부터 박수현 수석대변인과 전용기 원내소통수석 등이 자리를 지켰다.

빈소 안쪽에는 이재명 대통령, 김 총리, 우 의장,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조화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이런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사실상 '상주' 역할을 맡아 조문객을 맞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대표가 함께 헌화했고, 김성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조정식 대통령 정부특보, 조승래 사무총장이 목례로 분향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민주당 소속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도 빈소를 찾았고 인을 기렸다.

정청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민주당

통과 민주당 공동 주관하에 기관·사회장으로 치러진다. 앞서 정부는 유족의 뜻을 존중해 이 전 총리의 장례를 사회장으로 진행하되,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관장을 결합하기로 했다.

한편 73세를 일기로 별세한 이 수석부의장은 베트남 출장 중이던 지난 23일 건강이 악화돼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

참여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 수석부의장은 국회의원과 주요 공직을 두루 거친 정치계 원로로 한국 정치의 중심에 서왔다. 7선 의원을 지냈으며 굵직한 선거 때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원하며 정치멘토 역할을 해왔다. 4명의 대통령과 정치행보를 함께하며 김메이커로 불렸고, 친노·친문(친문재인)계 좌장격으로 활동해왔다. /뉴시스

전남광주특별시로 통합 수순... '주 청사'는 불씨 남아

통합 명칭만 합의... '주 청사'는 6·3 선거 뒤로 보류 시도-정치권 '오락가락'에 혼란만 가중, 갈등 격화 통합 난제될 듯... '시너지' 반감될라 반면교사 필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직전 최대 난제이자 갈등 요인으로 떠오른 통합자치단체 명칭과 주(主) 청사를 둘러싼 논쟁이 일단 통합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체 명칭과 약칭을 따로 뒤 안배하기로 했지만, 주청사 소재지는 특별시장 선출 이후로 미루기로 해 불씨를 남겼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광주·전남 지역 의원들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 논의 조찬 간담회'(4차 간담회)에서 오는 7월 출범 목표인 통합자치단체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약칭 '광주특별시'를 특별법안에 병기하기로 했다.

당장 합의가 쉽지 않은 청사 문제는 '3개 청사(광주·무안·동부) 균형 유지'라는 원론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주된 청사를 어디에 둘지는 오는 6·3지방선거에서 뽑힐 특별시장의 권한 문제로 남겨뒀다.

현재로서는 통합 대의를 위한 최소한의 합의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입법 일정에 쫓겨 주요 갈등을 제쳐두는 비교적 손쉬운 선택에 불과하다는 부정적 평가도 존재한다.

'주 청사'는 통합단체장이 주로 집무하는 곳이자 하나의 법적 권리·의무 주체인 자치단체의 공식 주소 즉 '특별시 행정 1번지'라는 상징성이 크다.

그만큼 지역 위상이 달라 있기도 하고, 경제적 효과와 공직 인사 등 실질적 면에서도 시·도간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 특정 지역 출신 현상이나 지역감정 우려가 반감될 수 있어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통합 이후 1·2청사로 구분 짓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할 정도로 자칫 논의 자체를 깨뜨릴 수도 있는 예민한 문제로 꼽힌다. 강 시장은 이를 '판도라의 상자'로 지적하기도 했다.

'5·3특' 대통령 공약과 정부의 전폭 지원 약속에 힘입어 지역 정치권이 대의 뜻을 모아 빠르게 추진한 이번 통합 논의 역시 '주 청사 소재지'라는 양초를 피하지 못했다.

명칭과 주 청사 논의가 뒤엎히며 시·도와 정치권은 오락가락했다.

앞선 이달 21일 시·도지사·의원 2차 간담회에서는 격론을 펼치는 등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남광주

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주 청사 광주시는 이른바 빅딜 제안이 나왔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25일 3차 간담회에서는 '명칭 광주 전남특별시-주청사 전남' 안이 잠정 합의된 것처럼 언론에 공표까지 했다.

그러나 이날 곧바로 강 시장이 "주 청사를 광주에 두면 명칭은 어떤 안이든 양보하겠다"며 원점으로 돌아왔다. 무안 지역을 중심으로 전남에서도 "주 청사는 반드시 전남도청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었다.

정치권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이, 통합 추진을 둘러싼 지역민들의 혼란과 갈등은 더욱 커졌다. 행정통합 소통 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공론장이 분열했다. 일주일 새 지역 간 갈등으로까지 번지며 청사 문제는 통합의 최대 악재로 부상했다.

이날 정치권이 "소담대실은 안 된다"는 마음으로 대통합 정신을 살리겠다"며 급히 덮었지만, 불씨는 쉽게 잊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이 현 일정대로 제정된다면 6·3지선에서 선출된 통합 단체장이 취임한 직후부터 갈등은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4개월여 뒤 선거를 앞두고 320만 지방정부를 이끄는 '특별시장' 한 자리를 둘러싼 후보 간 각축전이 가뜰이나 치열한 상황에서 '주 청사' 문제가 자칫 지역 간 대결 구도를 심화하는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지역 상생·통합 정신이 훼손되고 시너지 효과가 반감될 우려마저 나온다.

2010년 마산·창원·진해(마창진)을 반면교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추진 과정에서 명칭은 '창원시', 청사 소재지는 마산과 진해 지역 중 택일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통합시의 회 안에서도 각 지역 의원 간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등 3년간 진통을 겪다가 가까스로 '창원청사-마산·진해 보상책'으로 마무리 지었다.

김대성 전남연구원 상생협력단장은 "1+1이 3이 되는 통합이 필요하다. 통합으로 이익을 얻는 지역이 있더라도 불이익을 우려하는 지역과 집단이 통합 이전보다 나아진다는 확신이 전제돼야 한다"며 '소의 없는 상생'을 강조한 바 있다. /김병남 기자

## 윤혜영 광산구의원, 광산구 제1선거구 시의원 출마 선언 "행정 변화의 시기,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역할 다할 것"

윤혜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산구 제1선거구(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 시의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혜영 의원은 "더 큰 책임을 맡기 위해 광산구 제1선거구 시의원 출마를 선언한다"며 "행정 환경이 크게 바뀌는 지금, 광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년간 광산구의회에서 예산과 제도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며 "그 경험을 광역의회에서 시민의 삶을 위해 쓰고자 한다"고 말했다.

제1선거구 출마 배경에 대해서는 "제 삶의 터전이자 정치가 시작된 곳이 제1선거구"라며 "송정을 중심으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며 지역의 학교와 마을, 생활 현장을 함께해 왔고, 소상공인으로 활

동하며 사회복지 현장과 지역 공동체에 참여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8년 출마 당시 짧은 준비 기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응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 경험은 정치의 책임을 품으로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재 광주와 전남이 행정 환경 전환을 다시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며 "이번 변화는 지방 주도 성장과 균형 발전을 위한 기반을 새롭게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광주 군 공학·금호타이어 이전 부지는 공공기관 유치와 산업 이전을 통해 광산의 미래 기능을 담아야 할 핵심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변화에 준비된 책임 있는 광산 ▲돌봄과 복지가 일상에서 이어지는 광산 ▲아이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도시 광



산 ▲농촌과 도시가 균형을 이루는 광산 ▲일자리와 산업, 공공 기능이 커지는 광산 등 5대 비전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이 비전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조례와 예산을 통해 정책이 현장

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살피고, 시민과의 소통과 숙의를 바탕으로 광역의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말이 아닌 실천으로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준행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여과 및 미생물 배양 청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01호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썬(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